

# ‘이재명의 민주당’ 친정체제 강화로 쇄신 고배

## 당·선대위 측근 전진 배치 재선 김영진 사무총장 기용 전략기획위원장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과 선거대책위원회에 측근을 전진 배치했다.

25일 신임 당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김영진 의원은 이 후보와 대학 동문으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부터 이 후보를 도와왔다. 이 후보의 측근 그룹인 “인회” 중에서도 핵심으로 통한다.

재선 의원이 집권여당 사무총장을 맡은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김 의원은 당 사무총장과 함께 선대위에서도 총무본부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당과 선대위의 살림·곳간을 책임지는 요직에 핵심 측근을 기용하는 ‘양수겸장’인 셈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선대위의 문제는 빠른 의사 결정이 안 된다는 건데, 결국 인사·조직 등을 맡아서 끌고 갈 수 있는 총무본부장이 그만큼 중요

한 자리”라고 말했다.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발탁된 강훈식 의원은 이번 본선 선대위에서 정부조정실장으로 합류하며 신(新) 측근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는 전날 핵심 당직자들이 일괄 사의를 밝힌 이후 송영길 대표와 두 사람의 인선안을 놓고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후보와 같이 오래 호흡하고 최근 후보의 뜻을 잘 아는 두 사람이 중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당 대표와 후보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내 라인인 그대로 유지한다. 이 후보가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을 만나 입법 속도전을 주문한 만큼 입법의 연속성을 살리자는 취지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원내대표단의 유임에 대해 “정기국회 동안 입법·예산을 더 잘 챙겨야 한다는 메시지가기도 하다”고 말했다.

선대위 쇄신도 더욱 속도를 내 이번 주 안에 청사진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대변인은 “당과 선대위의 슬림화, 기동성

강화라는 기조 아래 선대위 재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 본부 체계도 숫자를 줄여 밀도 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안다”며 “추가로 본부장이나 선대위 인선은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선대위에 중량감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한 윤관석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복수의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에 대한 논의는 현재 열어 놓고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친정 체제 구축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급격히 전환하며 당과 후보의 일체감·속도감은 더 높아지겠지만, 그 결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책임이 전적으로 후보에게 돌아가고 경우에 따라 위기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의원은 “성공을 낸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검증특위 민병덕(왼쪽부터), 김용민, 박주민, 전용기 의원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 접수 및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선대위, 김종인 땀 총괄본부장 6명 발표

### 선대위 대변인에 김은혜·전주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5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최고위에서 6개 총괄본부장과 대변인 등 인선안을 추진받았다.

분야별로 ▲정책총괄본부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조직총괄본부장 주호영 의원 ▲직능총괄본부장 김성태 전 의원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 이준석 당대표 ▲총괄특보단장 권영세 의원 ▲종합지원총괄본부장 권성동 의원 등이다.

선대위 대변인에는 김은혜 전주혜 의원이 임명됐다.

원외에서는 경선캠프 때부터 활동해온 김병민 대변인과 함께 원외의 전 SBS 논설위원이 새로 대

변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보단장은 조수진 의원, 공보실장은 박정하 현 국민의힘 강원 원주장 당협위원장으로 정해졌다.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위원장은 윤 후보가 직접 맡기로 했다. 이 위원회 설치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으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위원장은 김미애 의원이 임명됐다.

윤 후보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선거운동이 더 지체해서는 곤란하고 1분 1초를 아껴가며 우리가 뛰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시되던 김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선대위 구성을 늦출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

다.

윤 후보는 “선대위 구성은 한 번에 전부 마무리해 발표하기보다 일단 당에서 출발하는 선대위 조직을 먼저 구성해나가면서 외부 영입 인사는 순차적으로 삼고초려를 해서 모시고 최고위에 부의해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대위가 출발하게 된 만큼 저 역시도 압도적 정권 교체에 대한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확답을 주기 전까지 추가 선대위 인선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진 않고 추가 인선과 김종인 거취는 별도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국방위 ‘BTS 병역특례 허용’ 법안 보류

### “국민 여론 고려 깊은 논의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이날 소위 회의 후 통화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부 소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방탄소년단(BTS)이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외 특정 예술경연대회 입상자나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겐만 대체복무를 허용한 현행 특례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논리도 쏘고 있다.

그러나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의결까지 이르는 못했다.

이와 별도로 소위 위원들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회에 책임을 미루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향적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위에 오른 관련 법안은 3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국민의힘 윤상현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공통으로 대중문화 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스타가 병역상 예술 요원으로 편입, 군 입대를 피할 수 있게 돼 이른바 ‘BTS 법안’으로 불려왔다.

/연합뉴스

## 민주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철거 수사하라”

### “윤석열 무혐의 땀 부실수사”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검증특위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고발 사주’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고발장 작성과 전달 과정에 다수의 검사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윤 후보)밖에 없다”며 “윤 후보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건 말도 안 되고, 분명한 부실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이 공수처 차장에게 공세를 가했는데 이로 인해 위축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며 “위축에 의한 축소 수사라면 공수처 역사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 주임 검사인 여

운국 공수처 차장이 박성준 의원과 사적으로 저녁 약속을 잡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 중 윤 후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그런 부분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 특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면 특검 재검증이라는 불명예를 받게 된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날 공수처에 윤 후보와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 성명불상자 등을 고발 사주에 가담한 혐의도 고발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을 지난 9월 초 입건해 수사 중이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윤호중 “불법은 죽어도 불법”… ‘전두환 추징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에선 사망할 경우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두환 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됨으로써 부정한 성격이 사라진

다고 할 수 없다”며 “헌법과 현행 법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전처처분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 후에도 환수 받도록 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갖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한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우리 당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법 제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상가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p>6, 7층 (140평)분양[중심상업지구]</p> <p>감정가(시세) -&gt; 9억</p> <p>급매가 -&gt; 5억8천 (보 3천 월 300, 용 3억5천)</p> <p>1) 6층(80평 분양) 감정가(시세) -&gt; 6억 (보2천,월200) 급매가 -&gt; 4억 5천</p> <p>2) 7층(60평 분양) 감정가(시세) -&gt; 4억 (보1천,월100) 급매가 -&gt; 2억 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 빠,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b>010-6670-9800</b></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 (호) 2분,</p> <p>장성 IC. 5분</p> <p><b>총 1760평</b>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p> <p><b>010-6670-9800</b></p>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